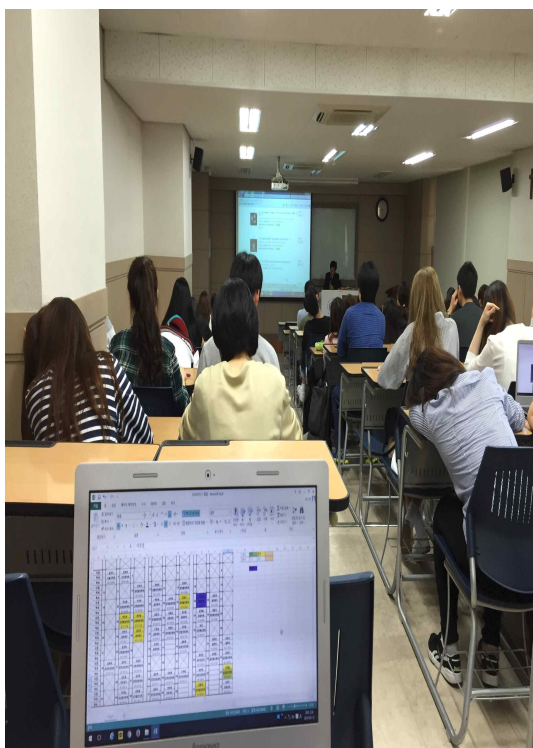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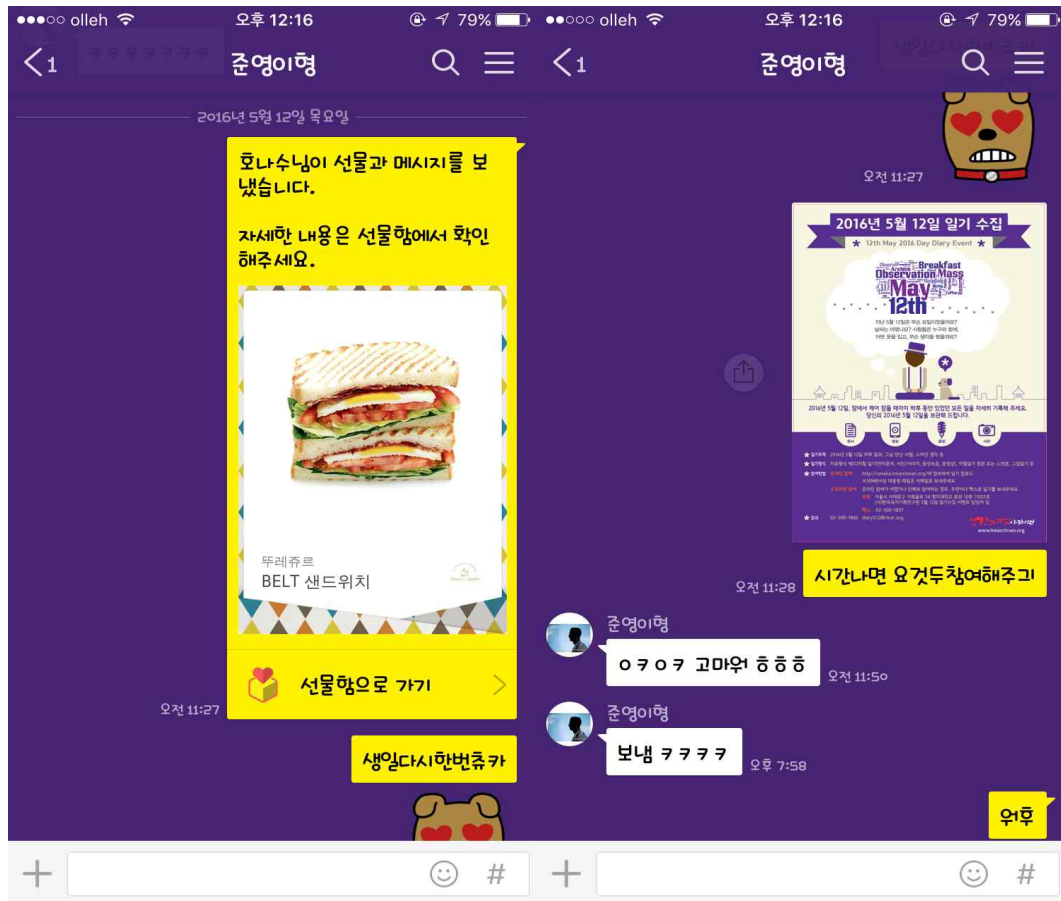


호나수의 5.12일 하루

오늘은 조교업무가 있는 날이다. 연구소 인턴업무를 하지 않기에 느긋한 꿀잠을 잔다.
눈을 뜨니 11시 대학교 동기이자 형인 준영이형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기프티콘을 싸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기프티콘을 보내면서 5.12홍보도 잊지 않았다. 프로홍보러 ㅋㅋㅋㅋㅋ 고맙게 준영이형이 참여했다는 카톡을 받고 기뻐했다.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현자타임을 갖는다. 멍하니 집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 조교업무 라고 생각을 하며 부랴부랴 지난주 출석체크를 한다. 매번 빠지는 애들은 빠진다.
내가 학부시절에도 그랬다. 매일 빠지는 사람만 빠진다. '애들아 수업 열심히 듣자...안들으면 나처럼 된다.' 라는 말만 속으로 하며 출석체크를 한 뒤. 예능을 보며 점심을 먹고 조교업무를 하러 출근.



조교 청강을 하며 폰게임을 하다가 문득 오는 시간낭비에 대한 아쉬움으로 책임기 코스프레를 하려 가져온 책을 본다. 추리소설이외의 책을 읽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였다. 제목처럼 너무 판타지한 얘기가 많아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챕터도 있지만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하며 읽는다. 나름 재밌고 신선한 시선의 동화도 많아서 속으로 감탄하며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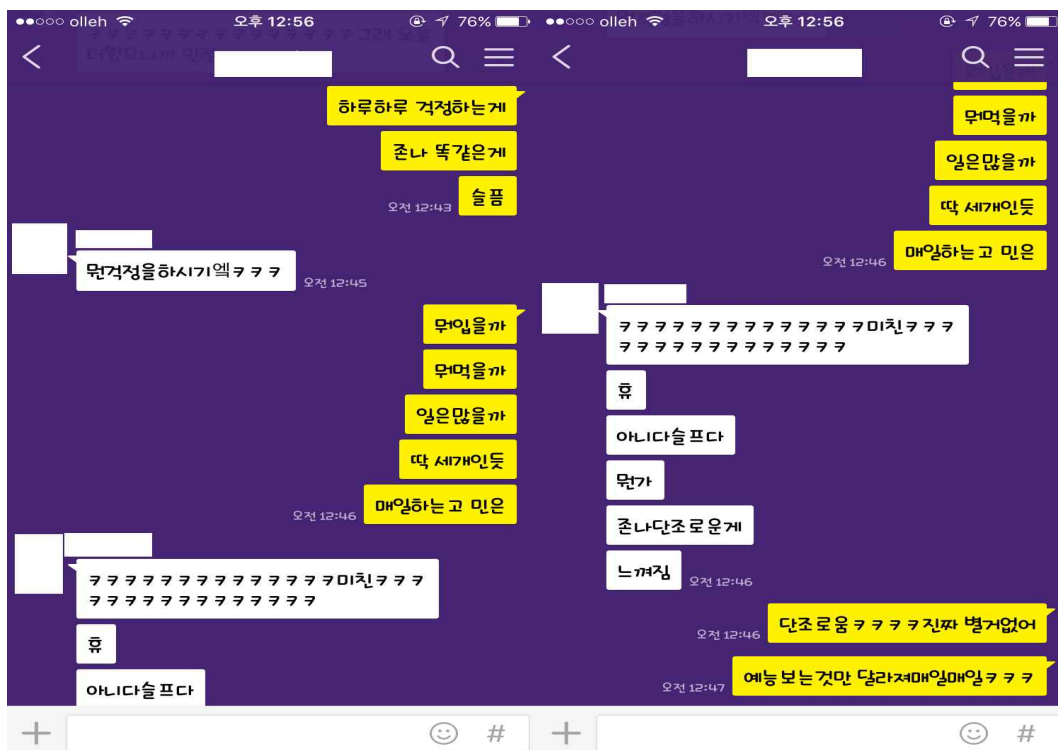
조교업무 이후에 집에가던 길에 연구소 정미리 선생님을 만나(정말 우연히...) 연구소에서 떡볶이 한접시를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또 먹었다ㅋㅋㅋㅋㅋ. 밥을 먹으면서 오늘도 질 야구를 잠시나마 보며 멘탈 수련을 한다. 다행히 4회까진 1점차로 지고 있었지만 이날은 12:1로 졌다. 계속되는 실점장면을 보지 않은 것에 만족한다.



야간수업인 sw수업을 들으러 책을 챙기며 집을 나선다. 오늘도 역시 문돌이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시켜주기 위해서 자꾸 비유를 하시는데 더 이해가 안 간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문송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 가로등도 스산하게 켜져있는 것만 같았다.



집에와서 후다닥 샤워를 하고 예능을 보며 운동을 한다. 서울와서 내가 좋아하는 달리기를 하지 못해 시작한 맨몸운동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배도 들어가고 바지사이즈도 줄고 이정도면 좋다. 방학 때 운동을 더하면 되니까. 운동을 할 땐 무조건 먹방, 국방을 본다. 목요일은 「마스 셰프 코리아 시즌4」를 보며 맨몸운동을 한다. 항상 매일 이 시간엔 같은 고민을 한다.



자기 전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걱정인 한화 걱정을 한다. 한화 걱정할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을텐데....맨날 저도 뭔가 한화란 팀이 좋다. 빨리 고척 돐구장 가서 야구 보고싶다.

사실 여기에 담지 못했지만 홍보도 많이했고 주위 친구들도 일기 참여 많이 해줬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내년 5.12 일기를 쓸때 내가 3학기 면서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논문걱정을 할, 그럴 시기였으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었으면. 이렇게 새벽 두시 반에 하루를 마무리한다.

